

의사의 사회봉사

Volunteer Works by Medical Doctors



박 재 형 | 서울의대 영상의학과 | **Jae Hyung Park, MD**
 Department of Ra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ail : parkjh@radcom.snu.ac.kr
 J Korean Med Assoc 2008; 51(10): 864 - 866

Abstract

The mission of medical doctors is to take care of patients and to work for well-being of each member in our community. In addition, it is our privilege for medical doctors to participate in volunteer works with our medical talent. Various motives are present for medical doctors to participate in volunteer works. There are many needed people such as the homeless or the aged living alone in our community. The sympathy for the needed people is the first step to be a medical doctor. Through volunteer works, we may have enough chance to communicate with our neighbors to establish good relationships with them. Today, the most important social value is the well-being for individuals and the social welfare for a society. Medical doctors are the best prepared group for the well-being and the welfare. There are many fields of volunteer works for medical doctors around the world; refugees in Africa, the rural people in India and China, the poor in North Korea, homeless people, and foreign workers in urban areas. We may start from emergency relief for disasters, continue one step forward with hygiene and preventive medicine, and finally participate in social welfare system to take care of the aged and handicapped people. Volunteer works by medical doctors should not be like an event but a daily life. It should be accomplished continuously throughout our life, not for only one time. Volunteer works by medical doctors should cover not only medical works but also all the fields of our society including social welfare.

Keywords: Volunteer works; Medical doctors; Society; Social welfare; Community
핵심 용어: 자원봉사; 의사; 사회; 사회복지; 지역사회

시 론

예로부터 의사직은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천직으로 알았다. 사회에서 의사의 직무는

의료를 담당하여 병든 자를 치료하며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의사는 의료 그 자체로서 사회에 기여한다. 나아가서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환자의 자율성과 이익을 우선하며

빈부귀천이나 어떠한 외관적인 조건에 구애받음 없이 평등하게 환자를 진료한다면 의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의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료의 탤런트를 사용하여 사회봉사를 할 수 있음이 또 하나의 특권이다. 의료계에는 사회봉사를 실천한 많은 선배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성산 장기려 박사는 외과의로서 진료를 통하여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뿐 아니라 전후 참상의 현장에서 수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행하였고 부산에서 청십자보험을 창시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을 앞당겼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이복에 있는 자신의 이산가족들도 누군가가 돌보아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의 사회봉사 동기를 꾸밈없이 말한 적이 있다. 이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하신 여러 선배의사들을 일일이 거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 때 한민족 리포트를 통하여, 때로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부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나라의 빈민들과 난민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하고 혹은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노숙자를 위하여 자원봉사 하는 의료인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사의 사회봉사는 왜 필요한 것인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의 차가 없을 수 없고 양극화로 인한 어려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들이 사회에 산재해 있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의료는 공활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그 기본이다. 경제적 이거나 사회적인 다른 이유를 떠나 개인의 아픔과 사회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의료인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체험하고 이웃과 대화하며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갈 수 있는 동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곧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로 연결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현대사회가 개인의 건강과 복지 지향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의사는 복지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정치나 사회의 전문가가 복지를 위한 리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질병과 건강복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을 갖고 있는 의사는 복지사회의 리더로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 환자 진료를 자본을 투자하여 적절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한 형태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병원 모델도 있으나 의료계의 모두가 그 방향으로만 간다면 삭막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미 선각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새로이 사회봉사가 요청되는 많은 분야가 있다. 인간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멀리는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있고, 인구 대국 인도와 중국의 농촌 빈민들이 있고, 가까이서 북한의 동포들이 있으며, 의료 전문직의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 군복무를 앞둔 젊은 전문 의사들이 해외 협력의사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봉사할 수도 있다. 국내에도 빈민가와 노숙자가 있고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시급한 것이 의료 문제이므로 우선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요청된다. 재난의 긴급구호에서 시작하여 보건의료와 에이즈 등 질병의 예방 분야에도 힘써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우리사회에서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금년 7월에 시작된 요양보험이나 노인 및 각종 장애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의사들은 강 건너 불로 구경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이제는 복지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의사는 복지도도 전문가가 되어 국민의 사회복지에 일조를 하여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의사는 질병의 치료에 열성을 다할 뿐 아니라 인간 전체를 보는 전인 치유로 나아가야 하며 인간 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치료에도 관심을 갖는 대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의사의 사회봉사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봉사를 할 것인가. 사회봉사는 자신을 장식하는 하나의 이벤트성 특별 행사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일상화되어야 한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지, 개인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기왕에 있는 진료 프로그램 외에 할 수 있는 작은 서비스는 없는가. 복지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건강상담이나

교육도 좋다. 직접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없다면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목적의 기부금제도가 있고 건전한 기부 문화에 의사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모임이나 로터리 클럽같은 비정부 국제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다. 넓은 눈으로 사회를 보며 재물의 소유나 상속보다 우리로 하여금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채워준 사회를 향하여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보람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봉사는 특정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하는 것이다. 청년 시절은 힘과 정력으로 시간과 몸을 드린다면 중년에는 직업과 기술로서 할 수 있고 은퇴 후에는 노년의 경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봉사이다. 은퇴의사들이 노인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도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좋은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즐기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의사의 천복이기도 하다. 또한 이제 의사의 사회봉사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곳이든 의미있는 봉사를 할 일이 있게 마련이다. 국제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 분야일 수도 있고 인도적인 차원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의사의 사회봉사는 일상화되고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 이제 의사는 소극적인 진료 중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봉사의 영역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